

한국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와 관련변인 연구*

The Level of Experienced Problem and Related Variables Among Rural Women in Korea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규련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Univ. of Suwon

Professor: Choi, Kyu Reo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experienced problem and related variables of farming women as a part of study on problem diagnosis and status enhancement of rural women. The subjects were 980 married farming women living in rural area.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t-test, ANOVA, Duncan-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Rural women experienced five categorized problems(farming work & health problem, institution & facilities problem, personality differences & communication problem with husband, child & in-law relatives problem, and husband's violence & sexual problem.

2)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influenced on experienced problems were conflict coping behaviors,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farming work time, age, the level of health, and income etc.

Additionally socio-demographic factors, their vocational consciousness, housework sharing, and couple's difference of sex-role attitude as related variables of the level of experienced problem of farming women were examined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

* 농촌진흥청 '99년도 농업특정연구사업으로 수행된 농촌여성 문제진단 및 지위향상에 관한 연구의 일부임

◆ key word: 농촌여성, 문제경험도

I. 서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 청장년의 이농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들의 농사일참여가 증가하여 최근 농업종사자 중 과반수정도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농림부, 1999; 통계청, 1999; 한국여성개발원, 1999b).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고령에 저학력자가 많아 기술수준이나 직업의식에서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 또 이들은 남성과 달리 농사일과 가사일의 이중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과 역할과중으로 인한 피로, 건강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가중되어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여성, 특히 교육받은 여성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능력개발기회도 적기 때문에 농촌은 노령화, 저 학력화, 낮은 생산성 등의 악순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김이선, 1998; 김종숙, 1997; 김주숙, 1990).

농촌여성의 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농업구조적 문제나 성불평등 문제, 농작업 스트레스와 영농 기술문제, 갈등문제 등을 주로 단편적으로 조사하였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체계성이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사례연구나 문헌연구방법을 이용하고 관련변인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여 농촌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최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양성 평등의식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의 문화지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폭력 등의 부부관계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태도와 부부 평등성 정도가 여성의 문제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되나 도시 취업여성에 관한 연구(최규련, 1993; 한국여성개발원, 1998)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 농촌여성에 관한 실태 조사나 분석이 없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남성과 나란히 농촌사회와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할 농촌여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UN이 정한 '여성발전 10년' 계획에 의하여 최근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시여성이나 농업부문 외의 공식적 취업여성에 더 많이 적용되고 있고, 현장에서의 체계적 기초 조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김영옥·김이선, 1999).

그러므로 본 연구는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을 전국적인 규모로 표집하여 농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농업관련 문제, 가족관계 문제를 포함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관련변인을 파악함으로써 농촌 여성문제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른 문제경험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농촌전반의 문제의 일부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사회, 가족, 농촌여성전반의 문제로서 농가부채, 가족해체 및 가족연대의 약화, 농가가구주의 노령화 및 노인가구의 증가, 영농후계자 확보문제, 노동력 부족,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농촌 기피의식, 육아와 자녀사회화, 자녀교육문제 등이 지적되었다(김주숙, 1982,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3).

농촌가족과 농촌여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권도하·이한기, 1994)는 첫째로 가족갈등문제로서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가족원의 역할갈등과 가족간 갈등 및 해체문제를 지적하였고, 둘째로 건

강문제로서 노동력 부족과 인구노령화, 의료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농민건강 및 모성건강의 악화를 지적하고, 셋째로 경제문제로서 농산물 가격불안정, 농외소득원 부족으로 인한 농가부채의 증가, 빈곤문제, 자녀교육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넷째로 젊은 층의 공동화문제로서 청장년층의 이농과 농촌총각의 결혼난,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결혼문제, 가족 재생산문제, 노인부양, 가족해체 및 소멸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조영숙(1997)도 같은 관점에서 농촌 가족의 문제로 경제문제, 건강문제, 자녀생활문제, 부부간 성격차, 노부모와의 관계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경기도 가족의 문제를 지역별로 비교한 변화순 등(1998)은 농촌지역은 특히 가족동반활동이 적고 시부모부양 부담, 친정부모부양부담, 의료비, 경조사비, 빚 등의 경제문제, 남편의 주벽과 학대, 부부애의 취약성, 비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농촌 여성의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중한 노동부담, 열악한 노동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인력의 주변화와 노동조건 악화, 사회문화적 소외 및 역할과 지위의 불일치문제 등을 밝혔다. 즉 농업노동의 질적 저하와 생산성 저하문제, 여성의 삶의 질 저하문제, 피로와 건강문제, 모성건강 악화, 사회활동참여 곤란, 고부문제,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과의 가사분담, 의사결정에서의 갈등 등이 지적되었다(권도하 등, 1994 ; 김영희·한경혜, 1996; 김이선, 1999; 김종숙, 1997 ; 김종숙·정명채, 1992 ; 이정화·최은숙·한경혜, 1995 ; 정기환, 1997, 1999; 조현숙, 1999; 최규련, 1997, 1999)

박옥임(1999)은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사회의 여성 문제를 사회문화적 측면, 소비경제적 측면, 여성가족적 측면의 세가지로 나누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로 마을공동체의 해체, 자녀교육문제, 도시의 저급한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소비생활불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가족적 측면의 문제로는 변형된 가부장제, 가사노동의 부담, 자녀와의 관계에서 권리행사제한, 노후생활대책의 보장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농촌여성의 문제를 스트레스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도 한다. 농촌여성의 일반적 스트레스로 자녀, 남편, 일, 농촌복지, 외모, 시대, 과로 등이 지적되었다(김정순, 1994). 농촌여성들은 농업활동에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며 이와 관련 낮은 소득, 일손부족, 피로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가사활동에서는 피로와 취미시간 부족이 문제라는 보고도 있다(양순미, 1996b). 농작업 스트레스 중 작업환경 및 경제관련 영역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보고도 있다(조현숙·김경미·최규련, 1999).

농촌여성의 갈등문제와 스트레스의 관련변인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연령, 가족유형, 주 농사, 학력, 생활수준, 가족원 수, 여성의 태도, 가사노동시간, 가족이나 남편의 인정과 지지, 의사결정형태, 가사도움 요청여부 등이었다(김영희 등, 1996 ; 김정순, 1994 ; 양순미, 1996a ; 조현숙 등, 1999). 즉 대체로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벼농사와 과수농가를 겸하는 경우, 가사·농업·임금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가족원 수가 많은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적을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남편 및 가족이 아내의 일을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사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들의 문제경험도와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 여성들의 상황은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한다는 면에서 맞벌이부부의 성격을 지닌다. 도시 맞벌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갈등문제는 인구학적 변인 외에 남편의 태도와 주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 남편의 가사참여, 부부간의 평등성, 주부의 대처방식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최규련, 1993 ; 한국여성개발원, 1998) 농촌여성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짐작되나 아직 이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없다.

지금까지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한 결과 실태조사방법보다는 문헌조사연구가 많고 전국규모의 연구보다는 한 지역에 국한된 연구나 사례조사 연구 등이 많아서 전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련변인 분석등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농촌 여성의 관점에서 가족관계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도를 조사하고 태도, 역할 및 평등성, 갈등 대처방식 등을 관련변인에 포함시킨 연구가 아직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을 전국적인 규모로 표집하여 문제경험도를 조사하고 관련변인으로 인구학적 변인 외에 태도변인(자존감과 부부간 성역할태도차이), 역할 및 평등성 변인(집안일분담, 남편의 가사참여도, 농사일비율, 농사시간, 사회활동참여, 재산명의), 갈등 대처방식 변인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여성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 개념정의 하였다. 종전에는 농촌을 행정단위로 읍·면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분류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읍·면 지역은 물론이고 시 지역에서도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농촌으로 포함시켰다.

2. 조사도구

1) 문제경험도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23문항의 문제에 대해 '경험하지 않았다'에서부터 '매우 심각했다'까지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경험과 심각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결과 부록1에서 보는 대로 '영농기술부족, 문화혜택부족, 교통불편, 주택구조불편, 노후대책부족, 여성차별적 제도' 등 6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과 '남편과의 성격차이, 남편의 술·담배문제, 남편과의 대화부족, 남편의 언어적 폭력' 등 4문항을 포함하는 2요인, '성생활문제, 남편의 외도, 남편의 신경과민, 남편의 정서적 폭력, 남편의 신체적 폭력' 등 5문항을 포함하는 3요인, '고된 농사일, 농업소득의

불안정, 농사일과 가사일의 이중부담과 피로, 질병' 등 4문항을 포함하는 4요인, '자녀교육 소홀, 자녀지도문제, 고부 및 시가와외의 문제, 가정불화' 등 4문항을 포함하는 5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1요인은 제도·시설문제로 명명하고(점수범위 6~30), 2요인은 남편과의 성격차 및 대화문제로(점수범위 4~20), 3요인은 남편의 폭력과 성문제로(점수범위 5~25), 4요인은 농작업과 건강문제로(점수범위 4~20), 5요인은 자녀 및 시가문제로(점수범위 4~20) 각각 명명하였다.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66~.79의 범위에 있고, 전체 문제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2) 관련변인 척도

(1) 태도변인

자존감과 부부간 성역할 태도차이를 측정하였다.

자존감은 Rosenberg(1979)의 Self-Esteem Scale 10문항을 6문항으로 축약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신뢰도계수 Cronbach α 값은 .74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

부부간 태도차이는 여성이 지각한 남편과의 성역할 태도차이를 묻는 척도 1문항으로 되어있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 '남편과 아내가 비슷',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근대적',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근대적'의 5가지 중 한가지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남편이 아내보다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2) 역할 및 평등성 변인

집안일 분담, 남편의 가사참여도, 농사일비율, 농번기 농사시간, 사회활동참여, 재산명의 등을 측정하였다.

집안일 분담척도는 식사준비와 설거지, 집안청소와 정리, 빨래와 옷정리, 자녀돌보기와 교육, 은행과 관공서출입, 집안손질과 수리 등 6개 항목에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부부가 비슷하게', '남편이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로 측정하였는데 Cronbach α 값은 .67이었다.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에 대한 문항(1문항)으로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조금하는 편이다', '많이 하는 편이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농사일비율과 농사시간은 가정의 전체 농사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여성의 농번기 하루평균 농작업 시간을 각각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사회활동참여도는 마을내 비조직/조직활동, 마을밖 비조직/조직활동, 종교활동, 자녀학교 관련활동 등 6가지 활동참여정도를 '참여 안함', '간혹 참여', '가끔 참여', '자주 참여', '적극 참여'의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60이었다.

재산명의를 토지, 주택, 예금의 3문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인명의', '대체로 부인 명의', '반반', '대체로 남편명의', '전적으로 남편명의'로 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80이었다.

(3) 갈등 대처방식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10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요인 분석결과 '팔자소관으로 돌리거나 참는다, 본심과 다른 말을 하거나 딴 얘기로 돌린다, 기분전환을 위해 다른 일에 몰입했다' 등 3문항을 포함하는 1요인과, '큰소리를 내거나 싸웠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꼬집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냉정하게 대했다, 화나 짜증을 바로 터뜨린다' 등 4문항으로 된 2요인,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주위에서 도움되는 방법을 찾는다, 이야기를 해서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 등 3문항으로 된 3요인으로 구분되었다. 1요인을 '회피적 대처', 2요인을 '표출적 대처', 3요인을 '이성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각각 .61, .65, .67이었다.

(4) 인구학적 변인

연령, 자녀수, 가족원 수, 연소득, 농사기간 등은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있고, 학력, 직업, 가족형태, 가족생활주기, 결혼상태, 건강상태, 생활수준, 주 농사 등은 응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며 각각 1문항으로 되어있다. 응답하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가족

형태와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하였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노부모동거 확대가족으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를 기혼자녀동거 확대가족으로, 노부모나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핵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가족생활주기 단계는 첫 자녀를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하였다. 즉 유아자녀기, 학동자녀기, 10대자녀기, 첫 자녀가 만 20세 이상에서 결혼 전까지인 성년자녀기, 첫 자녀가 결혼해서 막내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인 자녀독립기, 막내자녀 결혼 후인 자녀독립후기로 구분하였다.

3. 자료수집

척도작성을 위한 1차 예비조사로서 1999년 6월 경기도 농가주부모임 임원 180명을 면접조사 하였고 척도의 수정보완작업을 위한 2차 예비조사로 경기도 용인지역 30명과 충남 천안지역의 30명을 직접 면접조사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농촌의 여성인구비율과 도시근교 지대(地帶), 평야지대, 중·산간지대 비율을 고려하여 전국 농촌지역을 표본할당체에 의하여 조사대상 수를 선정하고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42개 지역에 전체 1160부를 배부하여 최종 1017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기재가 불성실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98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문제경험도, 갈등 대처방식 등의 변인들은 각각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하위 집단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Duncan - test를 이용하였다. 변인간의 관련정도를 알기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고,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

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변인을 중심으로 조사대

상의 일반적 성격을 고찰하면 <표 1>과 같다.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으며, 평균 연령은 45.5세(표준편차 8.4)이었다. 교육수준은 66.7%가 중졸이하이었다. 자녀수는 3-4명이 가장 많고 평균 자녀수는 2.9명이었다. 가족생활주기는 성년 자녀기가 31.4%로 가장 많고, 다음 10대 자녀기가 27.1%로 많았다. 지대(地帶)는 도시근교가 가장 많으며 중산간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980

변인	구 분	빈도 (%)	변인	구 분	빈도 (%)
연 령	20대	14 (1.4)	학 력	초졸이하	297 (31.0)
	30대	228 (22.4)		중졸	342 (35.7)
	40대	436 (44.5)		고졸	292 (30.5)
	50대	239 (24.4)		전문대졸	17 (1.8)
	60대이상	63 (6.4)		대졸	10 (1.0)
가족 생활 주기	유아자녀기	46 (4.7)	연소득	1000만원이하	138 (15.5)
	학동자녀기	139 (14.3)		1001~2000만원	283 (31.7)
	10대자녀기	263 (27.1)		2001~3000만원	237 (26.5)
	성년자녀기	305 (31.4)		3001~4000만원	107 (12.0)
	자녀독립기	162 (16.7)		4001~5000만원	61 (6.8)
	자녀독립후기	56 (5.8)		5001만원이상	67 (7.5)
경제 수준	하	162 (16.6)	가족 유형	핵가족	567 (57.9)
	중	716 (73.2)		노부모 동거확대가족	373 (38.1)
	상	100 (10.2)		기혼자녀 동거확대가족	40 (4.1)
자녀수	0~2명	434 (44.3)	주농사	일반농사	678 (69.2)
	3~4명	442 (45.1)		과수	109 (11.1)
	5명 이상	104 (10.6)		시설채소, 특작	68 (6.9)
		축산		125 (12.8)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79 (8.1)	부부간 태도차이	남편이 아내보다매우 보수적	237 (25.8)
	건강하지 못한 편	394 (40.3)		남편이 아내보다약간 보수적	376 (40.9)
	보통	227 (23.2)		남편과 아내가 비슷	191 (21.3)
	건강한 편	253 (25.8)		남편이 아내보다약간 근대적	91 (9.9)
	매우 건강한 편	26 (2.7)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근대적	19 (2.1)
결혼 상태	결혼생활	923 (94.2)	남편의 가사참여	전혀 안함	150 (16.2)
	사별	55 (5.6)		거의 안함	263 (28.5)
	이혼, 별거	2 (.2)		조금 하는편	390 (42.3)
				많이 하는 편	120 (13.0)
지대	도시근교	455 (46.4)	직업	농업	342 (34.9)
	평야지	207 (21.1)		다른직업+농업 겸업	83 (8.5)
	중산간지	318 (32.4)		농업보조	555 (56.6)

* 결측치에 따라 사례수가 상이할 수 있음

지, 평야지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핵가족이 57.9%로 가장 많으나 노부 모를 모시는 확대가족이 38.1%가 되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확대가족도 4.1%가 되었다. 대체로 이 표 본은 일반 농촌가족 보다는 확대가족이 많이 포함되 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에 60대 이상의 노인을 적게 포함시키고 독신가구 여성을 분석에서 제외한 때문 으로 해석된다.

주 농사는 일반 쌀농사와 밭농사가 69.2%로 가장 많으며 축산 12.8%, 과수 11.1%, 시설채소와 특작 6.9%이었다. 직업은 농업보조자가 56.6%로 가장 많 았고, 농업인이 34.9%,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 는 경우가 8.5%이었다. 연소득은 1001만원에서 3000 만원 이하가 58.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소득은 27,598,000원이었다. 주관적인 경제수준 은 중류가 73.2%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다. 여성들이 지각한 부부간의 성역할태도 차이 는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경우가 25.8%, 남 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경우가 40.9%로 약 66.7%가 남편이 아내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지각하였 고, 부부가 비슷한 경우 21.3%, 남편이 아내보다 약 간 근대적인 경우 9.9%,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근대 적인 경우 2.1%이었다.

결혼상태는 남편과 동거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94.2%로 대부분이다. 이는 본 연구의 성격상 남편과의 관계와 지위수준을 포함해야 하므로 남편 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에 주로 포함시킨 결과이다. 분석 시 남편과 관련되는 변인에 관한 분석에서 는 이혼하였거나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제외시켰다.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가사참여를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 편이 44.7%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하는

편(42.3%), 많이 하는 편(13.0%)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산출한 변인을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 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 동거가족 수는 4.1명이었고, 평균 농사기간 은 19.9년이였다. 농촌여성의 자존감은 평균 3.23(표 준편차 .66)로 중간수준이었다. 집안일 분담정도는 평 균값이 2.19로서 주로 부인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참여비율은 평균 53.28% (표준편차 23.24)이 고 농번기 농사시간은 평균 8시간 28분(표준편차 3 시간 22분)이었다. 농촌여성의 사회활동참여정도는 평균 2.53(표준편차 1.51)으로서 중간이하 수준이었 다. 재산명의를 4.06의 평균값(표준편차 1.00)으로서 대부분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었다.

갈등 대처방식 사용정도는 이성적 대처(평균 3.09, 표준편차 .78), 회피적 대처방식(평균 2.78, 표준편차 .70), 표출적 대처(평균 2.15, 표준편차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 경향

5가지 범주의 문제에 대한 경험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원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표 2>와 같이 농작업 관련문제 및 건강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경험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제도·시설 문제,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대화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의 순서로 경험도가 높았고 남편의 폭력문 제 및 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여성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농작업과 건강문제, 제도·시설문제는 일반적인 농촌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고 또 심각한 문제로 여러 선행연구(양 순미,1996b ; 정기환,1997; 조현숙,1999)에서도 지적

<표 2> 문제경험도

구 분	제도·시설문제	남편과의 성격 차이 및대화문제	남편의 폭력 문제 및 성문제	농작업 관련문제 및 건강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평균	2.16	1.98	1.41	2.67	1.91
표준편차	.78	.83	.52	.82	.73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의 폭력문제 및 성 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의 경험도의 전체 평균값이 낮은 결과는 이 문제들이 농촌 여성의 보편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마다 경험도의 차이가 많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3. 문제경험도의 관련변인

먼저 차이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3〉과 같이 5가지 문제경험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보통수준이나 잘사는 편에 비해 모든 문제경험도가 높았다.

또한 학력에 따라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경험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초졸이하 집단이 중졸이상 집단보다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영역에서 경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경제수준과 학력이 상호연관되어 있고 또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많다는 일반적 상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태도차이에 따른 문제경험도는 농작업 관련문제 및 건강문제를 제외한 문제전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대체로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나 남편이 근대적인 집단의 경우 부부간 태도가 비슷한 집단보다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 결과에서 부부가 비슷한 태도인 경우 공통적으로 문제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은 유사한 태도 집단이 갈등이 적다는 일반 공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남편이 아내보다 근대적인 집단이 대부분의 문제경험도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는 척도가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단일문항으로 된 것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부부간 태도 차이의 방향은 어떠한 태도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경험도와 관련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요한다. 또한 문제 중 남편과의 성격 차 및 대화문제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 경험도가 가장 높고,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보수적인 집단과 남편이 근대적인 집단이 그 다음으로 경험도가 높으며, 부부가 비슷한 태도를 지니는 경우 문제경험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부부관계의 성격상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대화문제가 부부간 태도 차와 가장 많이 연관되는 데서 기인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외에 연령, 가족생활주기, 가족유형, 직업 등에 따른 문제경험도는 일부 문제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 문제경험도는 농작업 및 건강문제영역과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영역이었다. 즉 농작업 및 건강문제는 30대 이상 집단이 20대 이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경험도가 높았고,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는 20대집단과 60대 이상 집단이 30대~50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경험도가 낮았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는 농작업 및 건강문제 영역과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농작업 및 건강문제 경험도는 자녀독립 후기단계가 가장 높고 유아자녀기단계에서 가장 낮았고 반면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경험도는 유아자녀기 단계가 가장 높고 자녀독립후기단계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가족생활주기별 문제경험도 차이는 연령이 많고 가족생활주기가 후기단계에 있는 경우에 자녀나 시가와 관계에서 벗어나고 농사일을 더 많이 하며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는 자연스런 결과로 보인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대화문제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혼자녀 동거확대가족이 노부모 동거확대가족에 비해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대화문제 경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는 다른 직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집단이 농업집단이나 농업보조집단에 비해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대화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농업집단이 다른 직업과의 겸업집단이나 농업보조집단보다 농작업 및 건강문제를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였다.

문제총합에 대한 경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문제경험도

독립 변인	집 단	제도·시설 문제	남편과의 성격차이 및 대화문제	남편의 폭력 및 성문제	농작업 및 건강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문제총합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	20대	12.07(3.56)	6.64(2.43)	6.21(2.26)	7.57(2.21)a	6.54(2.11)a	39.00(10.73)
	30대	13.26(4.48)	7.94(3.38)	7.06(2.67)	10.29(3.11)b	8.14(3.05)b	46.60(12.68)
	40대	13.03(4.59)	7.92(3.30)	7.04(2.52)	10.83(3.26)b	7.74(2.96)b	46.23(12.50)
	50대	12.61(4.61)	7.89(3.27)	7.16(2.61)	10.69(3.30)b	7.18(2.78)b	44.95(12.48)
	60대이상	13.34(5.54)	8.35(3.89)	7.30(2.74)	11.43(3.76)b	6.75(2.65)a	46.18(15.38)
	F 값		.78	.70	.54	5.03***	4.82***
학력	초졸이하	13.52(4.95)b	8.47(3.74)	7.49(2.94)	11.51(3.44)b	7.77(3.28)	48.44(14.32)b
	중졸	12.51(4.44)ab	7.71(3.16)	6.91(2.24)	10.40(3.16)a	7.46(2.66)	44.71(11.49)a
	고졸	12.98(4.45)ab	7.61(3.07)	6.83(2.41)	10.18(3.08)a	7.69(2.93)	45.08(12.12)a
	대졸이상	11.50(3.76)a	8.40(3.71)	7.35(3.55)	9.44(3.66)a	7.88(3.17)	44.20(13.43)a
	F 값		3.03*	3.71*	3.57*	10.61***	.66
경제 수준	못 사는편	15.13(5.14)b	9.47(4.06)b	8.07(3.52)b	12.22(3.36)b	8.61(3.45)b	54.27(15.56)b
	보통	12.68(4.37)a	7.68(3.11)a	6.92(2.35)a	10.42(3.10)a	7.50(2.81)a	44.71(11.39)a
	잘 사는편	11.69(4.44)a	7.38(3.10)a	6.72(2.15)a	9.94(3.74)a	7.07(2.74)a	42.05(11.73)a
F 값		21.29***	18.86***	12.43***	22.69***	10.52***	34.25***
가족 생활 주기	유아자녀기	13.69(4.16)	8.20(3.72)	6.82(2.37)	8.91(2.91)a	8.18(3.12)c	45.90(12.39)
	학동자녀기	13.12(4.54)	7.59(2.99)	6.58(1.90)	9.98(3.03)b	8.08(3.12)bc	44.87(11.78)
	10대자녀기	12.97(4.62)	7.93(3.30)	7.06(2.59)	10.75(3.18)b	8.03(2.86)b	46.34(12.31)
	성년자녀기	13.08(4.55)	7.99(3.40)	7.30(2.92)	11.02(3.33)c	7.44(2.92)b	46.52(13.30)
	자녀독립기	12.79(4.86)	8.20(3.59)	7.36(2.65)	10.86(3.35)bc	7.15(2.75)ab	46.54(13.29)
	자녀독립후기	12.50(5.05)	7.72(3.12)	6.66(1.81)	11.13(3.84)c	6.51(2.91)a	40.94(11.75)
	F 값		.40	.56	1.96	4.81***	4.22***
가족 유형	핵가족	13.05(4.77)	8.10(3.51)ab	7.19(2.79)	10.66(3.33)	7.45(2.88)	45.93(13.11)
	노부모동거확대가족	12.93(4.37)	7.60(3.00)a	6.87(2.23)	10.61(3.25)	7.86(2.99)	45.93(12.07)
	기혼자녀동거확대가족	12.64(4.62)	8.78(3.79)b	7.48(2.58)	11.26(2.99)	7.83(3.15)	46.63(12.68)
F 값		.17	3.29*	1.88	.61	2.20	.04
직업	농업	13.39(4.81)	7.94(3.38)a	7.19(2.67)	11.36(3.36)b	7.50(2.92)	47.03(13.08)
	다른직업+농업 겸업	12.24(4.04)	8.82(3.87)b	7.61(2.89)	9.87(2.95)a	7.99(2.96)	45.77(12.23)
	농업보조	12.86(4.57)	7.79(3.21)a	6.94(2.48)	10.35(3.22)a	7.66(2.95)	45.29(12.53)
F 값		2.28	3.01*	2.35	12.33***	.92	1.54
부부간 태도차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보수적	13.61(4.69)b	9.41(3.73)c	7.85(2.85)b	10.72(3.34)	7.99(2.91)b	49.59(13.43)c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보수적	12.77(4.66)ab	7.60(2.88)b	6.82(2.31)a	10.47(3.19)	7.59(2.96)ab	44.83(12.14)b
	부부가 비슷함	12.22(4.30)a	6.65(3.04)a	6.47(2.51)a	10.47(3.36)	7.02(2.74)a	42.66(12.25)a
	남편이 아내보다 근대적 ¹⁾	13.09(4.27)ab	8.19(3.25)b	7.38(2.60)b	10.84(2.95)	8.19(3.21)b	47.29(11.71)bc
F 값		3.11*	28.34***	12.34***	.58	43.62***	10.36***

1) 차이검증시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근대적인 사례 수가 극히 적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근 대적인 문항과 합하여 분석하였음.

* p<.05 ** p<.01 *** p<.001

〈표 4-1〉 문제경험도의 관련변인간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연령	1.00									
2.학력	-.57***	1.00								
3.연소득	-.08*	.09*	1.00							
4.건강	-.25***	.22***	-.00	1.00						
5.자존감	-.03	.12***	.14***	.18**	1.00					
6.부부간의 태도 차	.04	-.06	-.03	-.01	-.02	1.00				
7.집안일분담	.03	-.02	.02	.08*	.05	.07*	1.00			
8.남편의 가사참여도	-.08*	.08*	-.01	.08*	.05	.07*	.35***	1.00		
9.농사일비율	.14***	-.16***	.02	-.01	-.00	-.02	-.13**	-.07*	1.00	
10.농번기농사시간	.05	-.16***	.09*	-.01	-.03	.01	-.03	-.11**	.30***	1.00
11.사회활동참여도	-.11**	.11***	.15***	.14***	.18***	-.01	.01	.07*	.02	.09**
12.재산명의	-.16**	.03	.02	-.03	-.11***	-.05	-.01	-.17***	-.18***	.13***
13.회피적 대처	.10**	-.13***	.02	-.09**	-.19***	-.01	-.09*	-.08*	.05	.07*
14.표출적 대처	-.10**	.05	-.03	-.03	-.14***	-.11***	-.05	-.00	-.03	-.01
15.이성적 대처	-.10**	.13***	-.11***	.13***	.21***	.06	.05	.15***	-.02	.04
16.제도·시설문제	-.03	-.08*	-.07*	-.09**	-.18***	-.05	-.06	-.10**	.07*	.19***
17.남편과의 성격차 및 대화문제	.03	-.09*	-.08*	-.13***	-.22***	-.17***	-.22***	-.25***	.04	.06
18.남편의 폭력 및 성문제	.05	-.09**	-.08*	-.17***	-.17***	-.09**	-.11**	-.16***	.02	.03
19.농작업 및 건강문제	.10**	-.18***	-.03	-.22***	-.16***	.01	-.09*	-.16***	.20***	.33***
20.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14***	-.14***	-.06	-.17***	-.24***	-.02	-.14***	-.15***	-.02	.10**
21.문제총합	-.02	-.11***	-.10**	-.21***	-.13***	-.09*	-.16***	-.23***	.08*	.20***

* p<.05 ** p<.01 *** p<.001

〈표 4-2〉 문제경험도의 관련변인간 상관관계

변 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사회활동참여도	1.00									
12.재산명의	-.02	1.00								
13.회피적 대처	-.03	.03	1.00							
14.표출적 대처	-.05	.00	.17***	1.00						
15.이성적대처	.13***	-.12***	.14***	.02	1.00					
16.제도·시설문제	.00	.03	.26***	.20***	.00	.00				
17.남편과의 성격차 및 대화문제	-.04	.19***	.31***	.26***	-.18***	.37***	1.00			
18.남편의 폭력 및 성문제	-.07*	.10**	.25***	.26***	-.14***	.37***	.64***	1.00		
19.농작업 및 건강문제	.06	.05	.25***	.11***	-.02	.56***	.33***	.26***	1.00	
20.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06	.10**	.26***	.34***	-.08*	.54***	.41***	.46***	.38***	1.00
21.문제총합	-.01	.16***	.36***	.32***	-.11***	.82***	.73***	.70***	.71***	.75***

* p<.05 ** p<.01 *** p<.001

내는 변인은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부부간 태도차이이고, 대체로 초졸집단,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남편이 아내보다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 중졸이상 집단, 경제수준이 보통이상인 집단, 부부간의 태도가 비슷한 집단에 비해 문제경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경험도의 관련변인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표 4-2〉와 같이 5가지 문제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학력, 건강, 자존감, 집안일 분담, 남편의 가사참여도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 회피적 대처, 표출적 대처 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밖에 문제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도·시설문제, 농작업 및 건강문제 등 두 가지 문제경험도는 농사일비율, 농번기 농사시간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과의 성격 차 및 대화문제, 남편의 폭력 및 성 문제 등은 소득, 부부간 태도 차와 각각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재산명의를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외에도 남편의 폭력 및 성 문제는 사회활동참여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연령은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와 부적 상관을, 농작업 및 건강문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는 농번기 농사시간과 재산명의로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외에 이성적 대처 변인도 일부 문제경험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총합에 대한 경험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학력, 연소득, 건강, 자존감, 부부간의 태도차이, 집안일 분담, 남편의 가사참여도, 농사일비율, 농번기 농사시간, 재산명의로, 회피적 대처, 표출적 대처, 이성적 대처 등이었다.

4.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5가지 문제별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문제총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표 6〉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영향력이 큰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회피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beta = .26$), 농번기 농사시간이 많을수록($\beta = .19$), 표출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beta = .10$), 연령이 적을수록($\beta = -.10$), 소득이 적을수록($\beta = -.09$) 문제경험도가 높고 이 변인들에 의하여 전체 변량의 13.2%가 설명되었다.

남편과의 성격차 및 대화문제에 대해서는 회피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beta = .25$), 표출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beta = .18$), 이성적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beta = -.16$), 집안일 분담이 낮을수록($\beta = -.14$),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수록($\beta = -.12$), 남편이 부인보다 보수적일수록($\beta = -.12$), 재산명의로 남편에게 집중될수록($\beta = .11$), 소득이 적을수록($\beta = -.08$) 문제경험이 많았다. 이 변인들에 의하여 전체변량의 27.0%가 설명되었다.

남편의 폭력문제와 성 문제에 대해서는 표출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beta = .20$),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beta = .19$), 건강하지 못할수록($\beta = -.14$),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수록($\beta = -.12$), 이성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beta = -.09$), 소득이 적을수록($\beta = -.08$) 경험도가 많았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변량의 15.5%이었다.

농작업 관련문제 및 건강문제는 농번기 농사시간이 많을수록($\beta = .28$),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beta = .18$),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beta = -.18$), 농사일 비율이 클수록($\beta = .13$), 집안일 분담이 낮을수록($\beta = -.13$), 소득이 적을수록($\beta = -.11$),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많을수록($\beta = .09$), 재산명의로 남편에게 집중될수록($\beta = .08$) 많이 경험하고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24.3%이었다.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에 대해서는 표출적 대처($\beta = .24$)를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beta = .22$), 연령이 적을수록($\beta = -.18$), 남편의

〈표 5〉 문제경험도에 대한 중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인	제도·시설 문제		남편과의성격차 및대화문제		남편의 폭력 문제및 성문제		농작업관련 문제및건강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문제총합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0	-.10*							-.00	-.18***	-.19	-.12**
연소득	-.00	-.09*	-.00	-.08*	-.00	-.08**	-.00	-.11**			-.00	-.12***
건강					-.35	-.14***	-.56	-.18***	-.41	-.14***	-.190	-.15***
자존감									-.00	-.11**		
부부간 태도차			-.40	-.12***								
집안일 분담			-.17	-.14***			-.14	-.13***				
남편의가사참여도			-.45	-.12**	-.34	-.12**			-.46	-.14***	-2.25	-.17***
농사일 비율							.00	.13***				
농번기농사시간	.00	.19***					.00	.28***			.12	.20***
사회활동참여도							.00	.09*				
재산명의			.20	.11**			.13	.08*				
회피적 대처	.59	.26***	.44	.25***	.25	.19***	.29	.18***	.31	.22***	1.99	.32***
표출적 대처	.19	.10*	.26	.18**	.22	.20***			.30	.24***	1.08	.20***
이성적 대처			-.23	-.16***	-.10	-.09*					.52	-.10*
상 수		7.12		7.87		6.18		6.53		9.51		40.21
R ²		.132		.270		.155		.243		.230		.313

* p<.05 ** p<.01 *** p<.001

가사참여가 적을수록($\beta = -.14$),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beta = -.14$) 자존감이 낮을수록($\beta = -.11$) 경험을 많이 하였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변량의 23.0%였다.

이상의 문제유형들을 총합한 전체 문제 경험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회피적 대처($\beta = .32$), 표출적 대처($\beta = .20$), 농번기농사시간($\beta = .20$), 남편의 가사참여도($\beta = -.17$), 건강($\beta = -.15$), 연령($\beta = -.12$), 소득($\beta = -.12$), 이성적 대처($\beta = -.10$) 등이었고 이 변인들에 의해 전체변량의 31.3%가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문제총합에 대하여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표출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성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수록, 농번기 농사시간이 많을수록 문제경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에서 5가지 문제전반에 대한 경험도에 회피적 대처방식과 표출적 대처방식 사용이 공통적으

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일부 문제에는 이성적 대처방식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대처방식이 문제경험과 많이 연관된다는 가족임상가들의 보고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시설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경험도에서 집안일분담이나 남편의 가사참여도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남편과의 성격차 및 대화문제 경험도에서 이 변인들 외에 부부간의 태도차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결과는 동반자적 결혼생활을 지향하는 현 주세를 반영하는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득변인이 대부분의 문제경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와 농사일 변인이 농작업 및 건강문제, 제도·시설문제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결과들은 모두 농촌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제도·시설문제 경험도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이 13%밖에 되지 않은 것은 이 변인들 외에도 교통수단 이용정도,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의 근접성, 사회교육 혜택 기회, 주택의 편리성 정도, 주택공간의 활용정도 등의 변인의 영향력이 제외된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를 요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농촌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자신의 갈등대처방식의 개선과, 남편의 협조를 통한 집안일 분담과 역할공유, 여성의 재산명의 및 사회활동 참여 등 부부 평등수준의 개선, 건강 및 소득수준 향상, 농작업 부담의 경감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도시 취업주부 전반적 문제에 관한 연구(최규련, 1993 ; 한국여성개발원, 1998)에서 갈등대처방식, 집안일 분담 및 남편의 가사참여도, 소득 등의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모두 일하는 여성의 문제경험에서 갈등대처방식, 남편의 가사참여도, 연령, 소득 등이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결과에서 역할변인 중 농사일 비율, 농번기 농사시간 등 영농활동과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도시와 다른 농촌의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 여성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근교지대, 평야지대, 중 산간지대와 인구구성 비율을 고려한 전국 규모의 표집에 의하여 980명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농촌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그중 농작업과 건강문제가 가장 경험도가 높고, 다음 제도·시설문제, 남편과의 성격차와 대화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의 순서로 경험하였고, 남편의 폭력과 성 문제는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전체 문제경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

<표 6> 농촌 여성의 문제경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독립 변인	제도시설 문제	남편과의 성격차 및 대화문제	남편의 폭력 문제 및 성문제	농작업문제 및 건강문제	자녀문제 및 시가문제	문제총합
연령	●				●	●
연소득	●	●	●	●		●
건강			●	●	●	●
자존감					●	
부부간의 태도차		●				
집안일분담		●		●		
남편의 가사참여		●	●		●	●
농사일비율				●		
농번기농사시간	●			●		●
사회활동참여도				●		
재산명의		●		●		
회피적 대처	●	●	●	●	●	●
표출적대처	●	●	●		●	●
이성적 대처		●	●			●

치는 변인은 갈등대처방식, 역할수행 및 평등성 변인(농사시간, 남편의 가사참여), 연령, 소득, 건강 등이었다. 그리고 이외에 자존감, 부부간 태도 차, 집안일 분담, 농사일비율, 재산명의 등의 변인들이 일부 문제경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로써 지금까지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던 농촌여성의 문제경험도와 그 관련변인을 탐색하고자 했던 연구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반적인 경향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분석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농촌여성들은 농작업 관련문제 및 건강문제와 제도시설문제를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가격안정, 소득보장, 영농기술과 농기계 보급 등의 영농 지원대책과 문화센터 설치, 상담실, 사회교육의 활성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의 여성 능력개발 지원대책이 조속히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여성의 문제예방과 조기해결을 위해서 갈등 대처방식의 개선방안, 남편의 가사참여와 재산명의의 공유, 사회활동참여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양성 평등성 제고방안, 영농부담의 경감방안 등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며 그 지원방법으로 평등의식, 갈등관리, 자존감 향상, 동반적인 결혼생활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농촌여성의 부부문제, 노인 및 자녀와 관련된 가족관계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들의 문제해결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농촌여성들의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도하·이한기(1994). 농촌가족의 문제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농촌생활연구소 연구보고서.

김영옥·김이선(1999). 여성농업인 관련정책 현황과 평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영희·한경혜(1996). 도시근교 농촌부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김이선(1998). 개방체제의 농업변화와 여성농민의 생산자지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54, 87-108.

_____ (1999).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 농촌생활과학 20(1), 51-55.

김정순(1994). 농촌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 인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숙(1997). 전문 농업생산자로서의 여성농민의 과제.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 농민. 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움자료집. 한국여성농민연구소.

김종숙·정명채(1992). 한국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주숙(1982).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_____ (1990).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87년.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 회연구회, 가치.

_____ (1996). 농촌여성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농림부(1999). 농림업 주요 통계.

박옥임(1999). 한국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적응방안. 한국농촌생활과학회. 농촌생활연구소 공동주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방안 심포지움자료집.

변화순·장혜경·박영란·김영란(1998). 경기도 가족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54, 147-164.

양순미(1996a). 농촌여성의 생산활동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목포대석사학위논문.

_____ (1996b). 농촌여성의 갈등원인, 관련변수별 갈등 정도와 대처방안 연구. 농촌생활과학 17(3), 15-19.

- 이정화·최은숙·한경혜(1995). 도시근교 농촌부부의 갈등표출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 전종철(1999).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생활과학* 20(1), 44-50.
- 정기환(1997). 능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_____ (1999). 능가여성의 농업생산활동 참여실태와 지원방안. *농촌생활과학* 20(1), 56-61.
- 조영숙(1997). 농촌가족생활교육·상담 프로그램 요 구도조사. *농촌생활과학* 19(3), 17-22.
- 조현숙(1999). 한국농촌여성의 농작업참여 실태와 지원요구도. *농촌생활과학* 20(1), 10-16.
- 조현숙·김경미·최규련(1999).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0(2), 37-51.
- 최규련(1993). *맞벌이가족의 가족문제: 부부관계*. 하우출판사.
- _____ (1997). 농촌가족문제와 대책에 관한 고찰. *수원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논문집* 9, 277-296.
- _____ (1999).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접근과 상담. *농촌생활과학* 20(1), 76-80.
- 최덕경(1999).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와 복지수준. 한국농촌생활과학회. 농촌생활 연구소 공동주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방안심포지움 자료집.
- 통계청(1999). *농업기본통계*.
- 한국여성개발원(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9a).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9b).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부록 1〉 농촌 여성의 문제경험도 요인분석결과

구 분	I	II	III	IV	V	h ²
문화적혜택 및 취미여가시설부족	.68	.21	.00	.11	.00	.52
보건의료시설이용 및 교통불편	.65	-.14	-.21	.17	.00	.53
여성차별적 제도, 사회활동제약	.56	.30	.12	.00	.35	.55
주택구조불편, 설비부족	.55	.00	.16	.20	.19	.41
영농기술부족, 농기계조작미숙	.54	.00	.00	.39	-.00	.46
노후생활대책부족	.54	.00	.19	.27	.21	.44
남편과의 성격차, 가치관차이	.17	.77	.24	.16	.12	.72
남편과의 대화부족, 대화소통문제	.00	.77	.25	.10	.15	.69
남편의 술, 담배, 도박문제	-.00	.59	.17	.31	.00	.47
남편의 아내인격무시, 언어적 폭력	.15	.56	.54	.00	.18	.66
남편의 외도, 이성문제	.00	.00	.72	.00	.15	.55
남편의 신체적, 물리적 폭력	.10	.24	.65	-.00	.20	.53
성생활문제	.14	.34	.58	.00	.00	.47
남편의 아내외출과돈지출간섭, 제한	.26	.39	.51	-.12	.00	.50
남편의정신건강문제, 신경과민	-.00	.26	.43	.37	.26	.45
고된 농사일과 작업환경문제	.19	.16	-.00	.71	.00	.57
농사일과 가사일의 이중부담, 피로	.35	.20	-.00	.66	.12	.61
농업소득이 적고 불안정, 경제문제	.27	.23	-.00	.61	.00	.51
본인과 가족의 질병	.15	-.17	.38	.54	.14	.51
자녀와의 갈등, 자녀지도문제	.00	.00	.18	.10	.75	.61
고부갈등, 시가와의 문제	.11	.00	.18	.00	.66	.49
자녀교육소홀, 자녀교육의 질문제	.47	.11	-.00	.19	.59	.63
가족간의 갈등, 가정불화	.24	.38	.25	.12	.54	.57
Eigen values	6.61	2.40	1.42	1.01	1.01	
누가변량 비율(%)	28.74	39.18	45.37	49.77	54.14	